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담은 안무 만들기

제 출 자 : 박한별

지도교사 : 이덕래

초록

이 논문은 인간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돌아보고 안무로 담아낸 논문이다. 지금까지 느꼈던 많은 감정들은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온 감정이었다. 그렇게 사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깊게 생각해보고 싶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사랑'이라는 감정이 완성되려면 행복함, 미안함, 답답함 등 많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성질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다. 가족과 친구, 모든 인간관계를 느낀 나. 총 3파트로 나누어 감정들을 되돌아보고, 글로 정리했다. 그 글을 토대로 노래를 선정하고 편집 후, 안무를 만들었다. 유명한 안무가분들과 춤을 추는 졸업생, 간디인들에게 평가를 받았다. 대체적으로 안무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을 해주셨다. 나의 관계들을 신중하게 돌아볼 수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안무에 조금은 녹아든 것 같아 뿌듯하다. 표현하고자 했던 내 감정에 간혀 안무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떠올리며 공감을 하기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도 했으면 좋겠다.

목차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2. 연구 방법
 - 1) 참고 프로그램
 - 2) 탐방

II. 본론

1. 열반댄스란
2. 가족
 - 1) 감정
 - 2) 안무
 - 3) 평가
3. 친구
 - 1) 친구1
 - 2) 친구2
 - 3) 친구3

4. 나

- 1) 감정
- 2) 안무
- 3) 평가

III. 결론

1. 안무 총 평가
2. 돌아본 나의 관계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 맘 알죠?>

<참고 문헌>

<부록>

I. 서론

1. 논문의 동기 및 목적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춤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여러 영상을 보던 중 우연히 감정을 표현한 춤을 보게 되었다. 지금껏 그저 멋있다는 생각으로만 춤 영상을 봤었는데, 춤으로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논문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며 좋아하는 것의 능력치를 높이고 싶었다. 논문을 통해 내 감정을 말없이 오직 몸으로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큰 발전일 것 같았다.

내 감정을 돌아보니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었다. 관계로 복잡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일보다 늘 관계가 더 먼저였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깊게 생각해보고 싶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완성되려면 행복함, 미안함, 답답함 등 많은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많은 관계들(가족, 친구)로 느껴지는 다른 성질의 사랑을 표현해보고 싶다. 표현해내는 과정 속에서 소중한 관계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춤이 그저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 감정이 공유될 수 있는 매체라는 걸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의 감정들이 담긴 내 춤을 보면서 자신의 사랑을 떠올리며 공감을 하기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도 했으면 좋겠다.

2. 연구방법

1) 참고프로그램

「WHY NOT - 더 댄서」

JTBC4 / 2018

국내 최정상 K-POP 아이돌인 태민, 이기광, 은혁 셋이서 댄스디렉터 팀이 되어 LA에 가 월드클래스 댄서들의 클래스를 들으며 직접 안무를 짜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안무를 짜다는 게 방법도, 매뉴얼도 없이 순전히 자신의 느낌만을 담아서 해야 하는 활동이라 저들이 안무를 구상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본다면 조금이라도 감이 잡힐 것 같아 보게 되었다.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 했다. '댄스디렉터' 는 정말 자그마한 요소일 뿐이었고 태민과 은혁, 이기광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본 기분이다. 안무를 짜다는 것보다 그들이 LA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더 중심적으로 나와 있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들도 꽤 나왔고 댄스영상 속에서 보던 댄스스튜

디오도 보여 반가웠다 안무가들이 추는 춤과 한 말들에서 조금의 안무 짜는 요령을 얻을 수 있었다. ‘이안 이스트우드’ 에게서는 음악의 미세한 박자까지 캐치해서 안무의 박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고, ‘리아킴’ 에게서는 노래를 듣고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의 안무를 먼저 구상한 다음 다른 부분들을 짜면 편하다는 요령을 얻었다.

안무 짜는 요령보다 더 크게 느낀 것은 춤추는 사람들의 세계이다. 춤추는 사람들의 진짜 세계를 구경한 느낌이 크다.

2) 탐방

댄스 워크샵 - 2018. 07. 21

sns으로 알게 되어 평소 좋아하던 ‘체셔’ 댄서님의 워크숍(1시간 30분 동안 체셔님의 안무를 배우는 시간)을 다녀왔다. 논문을 쓰며 ‘춤’ 에 대해 더 깊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터라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외부에서 춤을 배우는 게 처음이라 많은 걱정과 기대가 되었다. 워크샵에는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누가 봐도 춤추는 사람처럼 꾸민 sns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득했다. 처음 경험하는 분위기 속에서 처음 취보는 느낌의 안무를 배웠다.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서 아주 많이 본 게 처음이라 춤을 배운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개개인의 춤 스타일과 에너지를 느끼고 가려 노력했다.

지금까지는 춤을 의무적인 느낌 하나 없이 정말 즐기기 위해서, 마음이 내킬 때만 했었는데 논문 주제를 춤으로 잡으며 추고 싶지 않아도 취야한다는 생각에 별로 추고 싶지 않았다. 또, 논문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춤을 잘 추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나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잘 취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러 있었다. 그런데 워크샵에 온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나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은 크기의 사람이고, 세상에 잘 추는 사람은 나 말고도 너무나 많다. 난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 힘들게 애써 잘할 필요 없다는 생각에 ‘춤을 잘 취야만 한다’ 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논문을 쓰며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었는데, 모든 것을 털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II. 본론

1. 일반댄스란

1) 일반 댄스란

춤의 장르는 수도 없이 많다. 춤과 춤 장르에 대한 이론 지식도 부족하고 내 감정대로, 몸이 가는대로 추고 싶은데 장르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여러 장르들을 찾아보던 중에 익히 들었던 ‘일반댄스’의 사전적 의미를 알게 되었다.

사전적 의미로는,
‘여러 가지 장르가 한데 어우러져 뒤섞이면서 댄서의 개성이 더욱 드러나는 춤 형태’이다.

아주 오래 전엔 하나의 안무에 한 가지 장르(왁킹이나 셔플 등)를 담아냈다. 요즘 대중들이 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댄서가 다양한 느낌의 안무를 만들고 공유하고 있다. 본인의 느낌을 안무에 담아내는 댄서들이 많아지며 전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장르(스트릿댄스, 걸스힙합 등)의 안무가 많아졌고, 이제는 스트릿댄스, 걸스힙합을 넘어 한 가지 장르로 규정지을 수 없이 댄서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 춤을 ‘일반댄스’라고 한다.

이 논문의 안무는 나만의 개성과 느낌이 뚜렷하다. 그래서 한 가지 장르로 규정지을 수 없어 ‘일반댄스’이다.

2. 가족

1) 감정

누구나 그렇듯, 가족을 생각하면 서글퍼진다.

뭘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어우러져 결국엔 슬픈 감정으로 남겨진다.

가정의 특성을 따져 종류를 나누자면 우리 가족은 엄격하고 딱딱한 느낌보다는 서로 친하고 장난을 많이 치는 유쾌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장난을 많이 치다보니 서로간의 진지한 얘기,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숙학교를 다니다보니 내 얘기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진지한 이야기들은 엄마아빠보단 선생님, 친구들에게 많이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던지, 무언가에 대해 얘기를 해서 함께 결정한다던지의 일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처음 살 때에도 휴대폰이 갖고 싶은 이유를 말하

고 내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님의 이유를 들으며 함께 얘기를 나누다 기보다는 사죄! 안 돼. 아아~를 몇 번 반복하고 사주는 느낌.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 좀 하자, 라며 방에 불러 놓고 마주보고 앉아 무엇을 정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상황들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다.

우리 집과 분위기가 다른 집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중학교에 들어온 후였다. 본인의 고민이나 힘든 일을 부모님께 울면서 말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무언가를 정할 때 대화를 통해 서로 타협점을 본다는 사실에는 더 놀랐다. 그렇지만 그때의 난, 굳이 고민을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더러 진지하게 할 얘기도 없었기에 시끄러운 우리 집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었다.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름 일상에 굴곡이 생기고 나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될 때쯤 엄마아빠와의 유대감이 전혀 없어졌다. 진지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일들과 관계로 드는 고민도 많았다. 그렇지만 친구들에게는 밥 먹다가도 툭 꺼내놓을 수 있는 얘기들을 엄마아빠에게겐 전혀 할 수 없었다. 심한 장난까지 칠 수 있는 편하고 친한 사이처럼 보이지만 딱 거기까지. 그 속의 것들을 나눌 수가 없었다.

서로의 유대감이 없기에 엄마아빠는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엄마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 편한 듯 불편한, 그런 관계.

안무에는 이런 감정을 담았다. 편하고 즐겁고 신나지만 어딘지 조금 불편한 느낌.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 순간의 감정에 깊숙이 빠져드는 타입이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 한참 고민하고 노래를 정할 시기에 가족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하던 감정을 담았다.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어우러져있다고 말했듯이 저 감정뿐만 아니라 미안함, 고마움 등 가족에게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다. 너무 감사하다고도 말하고 싶고, 정말 미안하다고도 말하고 싶지만 지금 나의 현실에서 가장 전해야 할 말인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기로 했다.

2) 안무

(1) 노래 선정

춤을 출 때 가사보단 노래 분위기와 멜로디가 더 감정 전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노래에서 가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가사의 내용, 노래 속의 '내'가 처한 상황과 겪은 일은 나와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노래 속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내가 담으려고 한 감정과 같다.

Lorde - Perfect Places

노래에서의 ‘나’ 는 완벽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며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고 모두 시시한 밤일 뿐이다. 계속 완벽한 장소를 찾고 원한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겨서는 완벽한 장소로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대체 완벽한 장소란 뭘까, 하며 끝이 난다.

안무 속 ‘나’ 는 밝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불편한 듯하다. 우리가 해야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신나고 즐거운 얘기만 해야 할까,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얘기를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며 밝은 모습과 힘든 모습의 이면을 보여준다.

아무리 즐겁고 밝은 척해도 그 안의 무언가는 계속 남아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려면 어색하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두 주워 담는다.

행복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계속 더 나은 무언가를 찾는다. 더 나은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더 나은 것에서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가사의 이런 분위기와 느낌이 내 감정과 맞는다고 생각한다.

가사 없이 멜로디만 들었을 때 노래는 전체적으로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지만 어딘가 슬프고 어둡다. 뭔가 행복하지만 슬픈 이면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어서 이 노래를 선정했다.

(2) 안무

본 논문의 안무는 동작 하나하나로 감정을 담은 게 아닌,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합쳐진 총 안무의 느낌과 분위기로 감정을 담았다. 감정을 가장 크게 줄 수 있었던 포인트 되는 동작들을 캡처해서 넣었다.

>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즐겁고 상쾌하게 하루를 맞이한다.



> 즐겁고 신나는 느낌을 표현한 동작이다.





> 땀을 닦는다 (신나지만, 왜인지 힘들다)



> 양 어깨가 한번 씩 밀쳐져 옆으로 밀려간다. 그래도 즐거워야 한다.
(즐겁게 나누는 대화 중 상처받는 말들이 조금 섞여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다)



> (불편함이) 목을 졸라온다. 떨쳐내고 즐거운 듯 행동한다.





>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한다. 어색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 먹는다.





1) 평가

(1) 일반인 평가

18학번 지연우

편한 듯 불편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편한 부분이 저의 사랑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춤 영상입니다

17학번 김송새봄

초반 부분 안무가 진짜 예쁜 것 같다. 다만 뒤로 가면서 점점 안무가 단순해지고 비슷한 동작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안무에서 감정 전달이 잘 되었다고 느꼈던 곡들에 비해서는 감정이 잘 와 닿지 않았던 곡인 것 같다.

15학번 강연우

표정이 다른 곡에 비해 밝다. 드라마틱하고 항상 즐거울 것 같은 곡이었다. 점점 표정이 바뀌면서 안무의 느낌도 확실히 달라졌다. 이면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슬픔에 대해 잘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다. 안무의 퀄리티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학번 김예현

장소선정, 날씨 등 배경이 굉장히 따뜻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그런 부분들이 가족에 대한 연관성으로 느껴진다. 노래가 좋은데 조용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애뜻한 느낌을 준다.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편안한 거 같다. 의도 한지 모르겠지만 중후반 표정에 변화를 주어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어려운 존재일 수 있는 가족들과 그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설명과 함께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거 같다.

(2) 전문가 평가

09학번 유현영 (현직 댄서)

안무에 대한 설명글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에 안무를 보는 시선이 확 다를 것 같다고 생각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설명을 읽지 않았을 때에는 예쁜 집 앞에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밝은 얼굴로 춤을 추는 모습이 예쁘고, 가족들과의 활기찬 모습, 사랑을 담은 안무처럼 보이는 반면에, 글을 읽고 난 후에 안무를 보니 느낀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려 참 많이 애썼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인다.

redlic 한하은 (원밀리언, 프리픽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댄서)

가족에 대한 컨셉이라고 들었는데 표현하려는 주제에 조금 맞게 가려면 동작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섹시한 부분을 많이 버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소품을 사용해서 그때의 즐거운 기억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면 확실히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무는 굉장히 좋은데 손끝처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3) 자기 평가

의상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조금 더 가족 같은 편안한 옷을 입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인 안무라 그런지 정이 간다. 안무 짜기 좋은 박자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Perfect Places 는 춤을 출 수 있는 박자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안무가 나왔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다.

1. 친구

1) 친구1

(1) 감정

내게는 늘 관계가 쉬웠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옆에 남을 사람은 남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나서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내가 좋아서 옆에 있는 거니까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늘 제멋대로였던 것 같다. 하고 싶은 건 늘 해야 했고, 모든 것의 중심은 언제나 나였다. 내 행동으로 인해 책임져야 할 뒷일들, 상처받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내가 잘 나서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할 수 있을만한 용기가 없는 것이고, 나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자만했다. 깊은 고민 하지 않고 오로지 내 감정만 생각해 내뱉은 말과 행동들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 순간에는 심각할 정도로 감정에 빠져들지만 오래 가지 않는 내 성격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또 그 때의 감정에 따르면 되지.'라는 무책임한 생각들로 나를 믿고 지지해주었던 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며 내 곁에 있을 줄만 알았다. 무책임했던 행동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당연히 내게 올 줄 알았던 네가, 이번에는 나를 따라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되돌아 생각해보게 되었다. 절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옆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주었기에 내 감정에 따른 행동들이 빛날 수 있었다.

오직 널 좋아하는 내 감정만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너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힘들어 할 너보단 내 감정이 먼저였다. 네게 전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무책임했다. 정말 많이 미안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처에 이 정도로 공감했던 것도, 이런 크기의 죄책감도 처음이었다. 그 때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늠도 안 되어 더 미안했다. 내 감정에 솔직한 게 이기적인 건가. 네 말이 맞다.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 감정에 따른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당연한 사랑과 당연한 관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늘 내 감정이 먼저였지만 감정대로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감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모든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후에 돌아봐도 후회 없는 선택일까.'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해준 너에게 감사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2) 안무

① 노래

Ariana Grande ft. Big Sean - Best Mistake

권태기를 겪고있는 위태로운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랑 노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자체는 내 감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 노래 속의 연인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언젠가부터 살짝씩 틀어져버린 관계가 서로를 더 행복하지 못 하게 만들고 있다.

그건 다 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 친구를 여전히, 아주 많이 좋아한다. 그렇지만 내 실수 (잘못)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 내 잔잔한 감정과, 크게 혼란스러우면서 힘들고, 잘못했다는 감정까지 담으려면 잔잔한 부분과 지르는 부분이 함께 있어야 했다. 'Best Mistake' 최고의 실수, 라는 제목부터 내가 전하고 싶은 감정과 같아 정말 마음에 들었고 딱딱 끊기는 박자와 잔잔한 부분과 지르는 부분이 공존해서 선정하게 되었다. 노래 자체가 누가 들어도 슬퍼 보여서 이 감정 전달에도 좋은 노래였다.

② 안무

> 조금 고민 중이지만 아직은 자신감이 있다. 아직은.





> 이게 아닌 듯하다.



> 내가 휘청거릴 정도로 혼란스럽다



> 이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와주었으면 좋겠다. 잡힐 듯 말 듯. 잡힌 듯하다.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르겠다. 목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제발 잡아줘.





> 죄책감이 몸을 사로잡는다. 떨쳐내려 던져본다.



>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계속 생각이 바뀐다. 그 감정에 끌려가기까지 한다. 그 곳에서 너를 찾아보려 했지만 역시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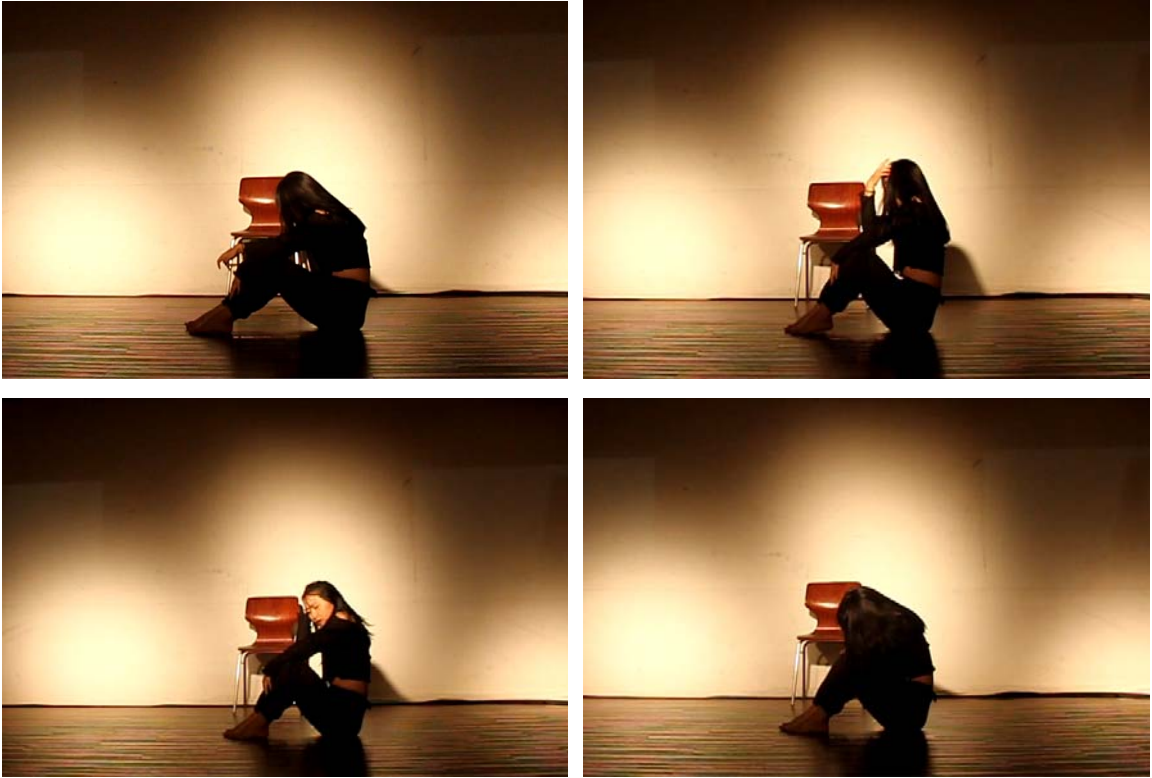


> 혼란스럽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 계속 잡아보려 했지만 결국 예전의 너는 찾지 못 했고, 너와의 관계가 끊겼다.





(2) 평가

① 일반인 평가

18학번 지연우

친구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7학번 김송새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곡이다. 우선 한별 언니의 논문 주제인 인간관계 속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라는 타이틀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정이거나 안무에서 감정도 잘 드러났고, 특히 옷을 잡고(1:39)끌려가듯이 이동하는 부분(1:42)이 진짜 마음에 들었다. 다른 곡들과 달리 앉아서 시작하고 앉아서 마무리되는 포인트도 좋았고 '나'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 같다.

17학번 방연우

동작 하나하나마다 감정이 느껴지고 눈물 흘릴 뻔했다. 되게 힘들어 보였다.

15학번 강연우

그리움이 느껴진다. 안무가 섬세했다. 드럼소리에 몸을 맡긴 것 같은 움직임이 멋있다. 퀄리티
굿~

14학번 김예현

우와..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힘있게 추는 동작들이 많아 멋지다. 처음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활용이다. 중간중간 표정에 변화가 있을 때, 몸짓이 곡이랑 어울릴
때 고혹적이다. 랩 나올 때 가장 시선이 가는데 낮 놓고 볼 정도로 표현하고자 하는 감
정을 전달하는 느낌. 랩 이후 동작이 섬세하고 약간 느려지는데 감정을 되돌아보는 느
낌을 줘 아주 좋음. 마지막엔 느꼈던 감정을 잘 보여주는 거 같아. 약간 슬프다. 대부분
의 춤에서 머리 돌리는 동작이 자주 나오는 듯.

② 전문가 평가

09학번 유현영 (현직 댄서)

안무에 기승전결을 담으려 한 노력이 눈에 보여 좋았다.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후회
혹은 미련, 회의를 담겨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표정에서 감정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안무 초반의 감정표현은 곡 선정과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생각한다. 노래의 분
위기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려 하지 않
았나,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나 생각된
다.

redlic 한하은 (원밀리언, 프리픽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댄서)

손에 제스처가 너무 많고 안무도 계속 반복되서 살짝 집중이 안 돼요! 춤을 출 때 상반
신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리도 함께 쓰는 동작을 많이 넣거나 아예 의자에 앉
아서 상체만으로 춤을 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선도 예쁘고 안무의 흐
름을 잘 캐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안무를 조금 더 정리하고 다른 느낌의 안무를 짜보
면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③ 자기 평가

가장 좋아하는 안무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춘 춤이지만 영상을 볼 때마다 움찔움찔
하고 소름이 돋는다. 막 울컥해서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감정 표현이 잘된 것 같다. 사실
5개의 안무 중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만든 안무이지만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이 확고해
서인지 잘 만들어진 것 같다. 나의 춤 스타일과 춤 선이 가장 잘 살려진 안무인 것 같
아서 너무 좋다.

2) 친구2

(1) 감정

우리가 친한 이유는 너무 잘 맞아서도, 좋아하는 게 같아서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성격도 모두 다르다.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양보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양보하고. 성격이 다른 것을 '재는 대체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래, 재는 저런 애지.' 하며 넘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점차 깨달았고, 서로가 다름을 잘 알고 그냥 인정해 버리니까 웬만해선 싸울 일도 없다. 그냥 나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우리가 친한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딱 딱 잘 맞아서가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젠 누구보다도 서로를 제일 잘 아는 우리. 웃으며 장난칠 수 있는 일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친구의 아픈 부분도 잘 알고 있는 우리다.

너희와 있으면 늘 즐겁다. 마냥 신난다.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얘기만 하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즉흥적으로 신나는 일을 하기도 너무 좋다. 너희와 있을 때 내가 가장 신나고 즐거워 보인다. 가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가장 많이 웃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날 수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신난다.

안무에는 너희와 있을 때 마냥 신나고 마냥 즐거운 나를 담았다.

(2) 안무

① 노래

Maroon 5 - Lucky Strike

이 노래는 사랑 노래이다. 노래 속의 '나' 는 정말 행복해하며 그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내비친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끝내주는 행운이라고 계속 말한다.

후렴구가 아닌 가사들은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어를 잘 알지 못 하는 내겐, 후렴구에 계속 반복되는 '마이 럭키 스트라이크' 라는 가사가 가장 깊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내게 '럭키 스트라이크' 이다. 나도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마냥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를 원했고, 너희는 나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정했다.

② 안무

> 늘 신나고 즐거운 마음을 표현한 동작이다.



> 너희는 나의 즐거운 럭키스트라이크!



>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던 중 생겼던 무겁고 어려운 일들을 표현해보았다.





> 그렇지만 그 일들 덕분에 우리는 더 서로를 알게 될 수 있었다. 다시 즐거워지는 중.



> 신나고 즐거운 감정을 기타치는 것에 비유해 표현해보았다.



(3) 평가

① 일반인 평가

18학번 지연우

친구들과 노는 것, 놀면서 재밌는 감정의 표현을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발랄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17학번 김송새봄

일단 엄청 밝다. 표정도 되게 좋았고 다섯 개의 곡 중에서 한별 언니가 안무에 담아내 고자 했던 의미나 감정들을 제일 잘 느끼게 해 준 곡인 것 같다.

또한 한별 언니가 가지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보여진 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곡의 분위기와 영상에 나온 장소, 의상이 잘 매치돼서 딱 보자마자 곡의 이미지가 바로 보여지는 느낌이라 장소와 의상 선정을 잘 한 것 같다.

15학번 강연우

신나 보인다. 음악이랑 잘 매치된다.

14학번 김예현

배경이랑 옷이랑 다 환해졌네 ㅎㅎ 친구1과 확 다르다. 웃음을 가장 많이 짓는 춤인 듯. 그만큼 신나고 행복한 감정을 표현한 것 같다. 약간 뛰는 듯이 춰서 상큼하고 귀여운데 더 뛰거나 날라다닌다던지 무대 활용을 충분히 하면 보기에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아예 출 수 없도록 어려운 발재간을 만든다거나 반대로 특징안무를 넣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면 더 중독성 있을 거 같다. 단체안무로 조금 수정해서 친구들과 추면 재미 있을 거 같다. 흥얼거리면서 막 출 수 있게끔 기억할 수 있는 동작을 넣었어도 좋을 듯. 드럼 박자가 돋보이는 노래이니 스프라이트, 사이다 광고처럼 더 튕겨서 춰도 귀여울 듯. 이 춤에 대상인 사람들이 부럽다. 좋겠다~

② 전문가 평가

09학번 유현영 (현직 댄서)

다른 안무들에 비해 전개가 쉽고 강렬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안무의 아주 초입부터 명확하게 보여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안무 도중에 웃음을 잃지 않고 감정을 쪽 이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작적으로 봤을 때 쉬운 동작들을 가미해 보는 사람의 기억에 한 번 더 가볍게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절제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다.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스텝 동작을 조금 더 연구해 뛰는 모습을 더 보여줬어도 좋을 것 같다.

redlic 한하은 (원밀리언, 프리픽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댄서)

안무의 흐름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이 안무가 친구의 어떤 부분인가 이런 거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③ 자기 평가

단순하게 ‘즐겁다’ 라는 한 감정만 담은 안무여서 대체로 좋은 평가가 나왔다. 누가 봐도 즐거워 보인다.

‘럭키 스트라이크’는 곡 자체가 이미 너무 유명해서 커버댄스가 아주 많았다. 같은 박자에 안무를 만들면 전체적인 느낌이나 동작의 느낌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안무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계속 신나는 느낌을 주려 했고, 밝은 표정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의상도, 배경도 주고 싶었던 느낌과 잘 맞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에 든다. 해가 째째했다더라면 색감이 더 예뻐졌텐데. 살짝 아쉽다. 그냥 봐도 밝아보여서 좋다.

3) 친구3

(1) 감정

취향 맞는 친구를 찾기는 어렵다. 마음 맞는 친구를 찾기도 어렵다.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무조건 지지해주는 친구를 만나는 것.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무조건 네 편이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일로 내가 어떻게 변했든 난 널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힘든 만큼, 내가 힘든 만큼, 아픔을 함께한 만큼 우리의 관계는 깊고 단단하다. 이 정도의 유대감을 가지는 사람을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하나쯤은 있다. 웃는 얼굴에 가려진 그런 아픔들. 난 너의 아픔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너도 나의 아픔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서로의 아픔을 잘 알지만 완전한 이해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 하나,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는 것. 너만 힘든 것도, 나만 힘든 것도 아니니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는 것. 그 아픔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아픔은 그 아이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우린 모두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리로 돌아가 품에 안겨 평평 울면서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니까. 분명 힘들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여서, 너희가 나와 함께여서 힘들지만은 않다. 우리에게엔 그런 따뜻함이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힘들어도 난 널 다시 잡아줄 것이다. 네가 널 꼭 잡아줄 것이다.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드는 감정도 너무 많아 두서없이 적어버렸다. 안무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한 문장으로 담아내고자 했던 감정을 정리하자면,

힘든 일을 함께함으로써 생긴 유대감, 분명 다 힘들지만 함께여서 힘들지만은 않고, 그 속에서도 분명 따뜻함이 있는 느낌. 그 따뜻함으로 난 널 언제나 잡아줄 것이다.

(2) 안무

① 노래

Rudimental & Major Lazer - Let Me Live

노래 속의 ‘나’ 는,

‘난 하나뿐인 존재니까 내 세상은 온전히 나의 것이야. 누구도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거야. 이게 내가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니 나를 좀 내버려 둬. 매일을 즐기며 인생을 즐길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

‘넌 하나뿐인 존재니까 너의 세상은 온전히 너의 것이야.

무엇도 너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 그 어떤 것도.’

이러한 노래 속의 가치관을 친구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다. 어떤 힘든 일도 무슨 이상한 사람도 너의 세상을 건드릴 수 없어. 너의 세상은 온전히 너의 것이야.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도, 관계를 맺으며 느낀 것들도, 들었던 감정들도 너무 많아 한 감정으로 정리할 수 없어서 안무엔 다양한 감정들을 모두 담았다. 다양한 감정을 모두 담으려면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듯한 신비로운 느낌의 분위기를 가진 노래가 필요했는데, let me live 가 그랬다. 첫 반주부터 살짝 기괴한 신비로운 음색들로 시작했고, 노래의 분위기가 그냥 다 신비로웠다. 박자도 다양해서 안무와도 잘 어우러지는 곡이어서 선정했다.

② 안무

> 많고 다양한 사람들 속의 나를 표현해보았다.



> 너라면 모두 괜찮다.





> 너희니까 날 당겨줄 수 있다.



> 많고 혼란스럽고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니까 버틸 수 있다. 서로를 잡아줄 테니까.







> 너무 큰 상처들에 버티지 못 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너만은 잡아줄 것이다.





(3) 평가

① 일반인 평가

18학번 지연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아픔을 함께하자는 동작이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좋았다.

17학번 김송새봄

이건 내가 느끼기에 가장 감정이 와 닿지 못한 곡 같다. 안무도 굉장히 예뻐고 표정도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였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것 같다. 그리고 영상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얼굴에 집중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감정 전달이 가장 부족했다고 느꼈지만 안무나 영상이 정말 정말 예뻐다

14학번 김예현

멋지고 차분하게 섹시하다. 춤이 조금 짧아 더 보고 싶은 마음. 구성은 좋다. 힘도 있고 건강한 춤. 좀 더 보강해 창작 춤 대회나 공연으로 해도 좋을 듯. 서로 마주보고 있는 느낌을 줘서 기분이 좋다. 예쁘다.

② 전문가 평가

09학번 유현영 (현직 댄서)

주제도 어려웠고 전달도 가장 어려운 안무였을 것 같다. 이 안무도 설명을 읽기 전과 후과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데, 읽기 전에는 뭐랄까, 뭘 말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읽은 후에야 그런 점들이 눈에 보이더라. 안무에 좀 더 직접적으로 '너와 나의 끈끈함'을 표현할 만한 단순한 동작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마치 수화를 하듯이.

redlic 한하은 (원밀리언, 프리픽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댄서)

안무 자체는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표현하고 싶은 주제는 잘 찾지 못하겠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자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게 앞으로 안무를 짤 때 더욱 더 도움이 될 거예요.

③ 자기 평가

안무 자체는 가장 마음에 들지만 논문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가장 별로이다. 대체적으로 감정 표현은 잘 안 되었지만 안무가 가장 예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나왔던 평가들과 같이 감정 표현 부분에서는 확실히 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감정표현과 상관없이 순전히 '얼반댄스 안무 짜기' 만을 목적으로 두고 만들어낸 안무라면 퀄리티가 가장 높은 것 같다. 동작들이 깔끔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커버할 수도 있는 그런 안무이다. 다른 안무들보다 조명의 색감이 훨씬 좋고, 초점도 잘 맞아서 영상도 예쁘게 잘 나왔다.

2. 나

1) 감정

내 친구들은 유형이 다양하다. 어두운 과거 하나 없는 듯 마냥 행복해 보이는 친구와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친구, 아픔을 당당히 내비쳐주는 친구들이 그 사례이다. 그런 친구들에게 난 무너지지 않고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난 다른 사람의 아픔에 크게 공감하지 못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친구들의 얘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편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

다.

행복해 보였거나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거나 아픔에 당당했던 그 많은 아이들이 내게 와서 모든 감정을 마구 쏟아냈다. 다 같은 시기였다. 위로해줄 수 있지만 큰 공감은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었던 내 성격이 그 땐 통하지 않았다. 나도 누군가에게 내 감정들을 쏟아내고 싶었는데 그 감정들은 내 감정이 아니어서 멋대로 쏟아낼 수 없었다. 아무것도 쏟아내지 못 하고 많은 감정들을 계속해서 안에 꼭꼭 담았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무엇도 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감정들이 들어와 이젠 그게 내 감정인지 다른 사람의 감정인지도 구분이 안 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말한다. 내가 완성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너 자신을 챙기는 게 먼저라고.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뿌리칠 때는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힘든 것의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된다. 나보다 다른 아이들이 훨씬 힘든데. 그 아이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먼저 챙겨주고 싶다. 나보다 급해 보여서. 난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냥, 힘들었겠다. 괜찮아?” 한 마디면 충분한데. 나도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무조건적인 내 편의 위로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안무는, 그 전의 모든 감정들을 담은 안무와 같다. 함께 하면 늘 즐겁고 신났던 친구들과 힘든 일을 함께 했다. 그러던 중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감정을 쏟아냈고, 내게도 많은 죄책감을 안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깨닫게 해준 일이 터졌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그 때의 내 속에 있던 많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담은 안무이다.

2) 안무

(1) 노래

Sia - Chandelier

샹들리에의 가사들은 대부분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후렴구에 샹들리에에 매달려 타고 놀 거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는 샹들리에에 매달려서 타고 노는 것은 쉽지 않은 상상 속의 행동과 같다. 샹들리에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현실에 고개를 떨구지는 않겠지만 (인생

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눈을 뜨지도 않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싶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실 도피적인 느낌도 함께 가지고 있다. 만약 상들리에를 떨어뜨리면 수천만원은 기본적으로 깨지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고 있다.

노래 속의 '나' 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지금의 힘든 일에 모든 걸 내려놓지는 않을 생각이다.

이렇듯 노래 속의 '나' 가 느끼는 감정과 안무에 담은 '나' 의 감정은 같다. 내 많은 감정과 혼란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면 팡팡 터지고 살짝 어지럽고, 계속 지르는 노래가 필요했는데 상들리에가 딱 그랬다. 내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하기 딱 좋은 노래여서 선정하게 되었다.

(2) 안무

> 너무 많은 감정들에 내가 놀린다. 그 감정들을 이겨보려 한다.





> 그냥 모든 것에서 달아나고 싶다.



> 모두 모아진 내가 탄생한다.



> 가슴에 계속 박힌다. (많은 감정과 상처들) 꼭꼭 담는다.



> 너무 혼란스러워서 휘청이지만 절대 휩쓸리지 않겠다.



> 이젠 나도 벅차다. 결국 떠밀려서 주저앉아 버렸지만 무너진 그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3) 평가

(1) 일반인 평가

18학번 지연우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동작은 자기가 슬픈 것을 말하지 않고 가슴 속에 감추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았다.

17학번 김송새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 같다. 사실 춤을 아무리 잘 추더라도 표정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곡은 안무와 표정 연기가 모두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져서 감정 전달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건 엄청 엄청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0:26~0:28 부분 진짜 최고...!!!

15학번 김마루

춤을 잘 몰라서 글을 봐도 춤의 동작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는 힘들어보였다. 동작 하나하나에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싶다.

15학번 강연우

안무에서 애절함과 간절함이 느껴진다. 절실함과 절망감이 느껴진다. 뭔가 자기 자신을 옥죄어오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다. 잘 춘다. 내가 춤을 잘 춘다 못 춘다 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14학번 김예현

무게 있는 곡과 무대 배경이 감정을 표현 하기에 좋은 선택. 표정, 몸짓에서 강단이 있게 조절을 잘 한다. 재즈댄스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강렬하다. 고민 많고 혼란스러운 듯이 잘 표현한 거 같다. 무대 활용이 돋보이고. 이어지는 동작들이 시선을 끌게 한다.

(2) 전문가 평가

09학번 유현영 (현직 댄서)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보는 내내 즐거웠다. 힘이 좋아서 중간에 지루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표현하기에 아직 많이 부끄럽고 서투른 면이 보인다.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잘 보이려 하는 모습들이 안무를 방해한다.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고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정말 음악과 감정을 제대로 느껴가

면서 춤추려 노력한다면 더 멋진 결과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의 안무도 본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최대치를 끌어낸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redlic 한하은 (원밀리언, 프리픽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댄서)

감정 표현이 잘된 거 같아요! 그렇지만 샹들리에라는 노래를 조금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기나 몸에 중심 잡는 연습을 하면 앞으로 춤추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닉적인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안무의 흐름이 좋은 편인데 중간에 머리를 정리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보는데 흐름이 끊길 때가 있어요!! 머리가 조금 지저분해도 만지지 않는 게 춤출 때 훨씬 멋있어 보인답니다!

(3) 자기 평가

‘샹들리에’ 라는 곡을 듣자마자 이 곡에 안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박자가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과 정말 잘 맞았고 내 안무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생각했던 대로 역시나 동작들이 잘 나왔다. 큼직큼직하게 테크닉적으로 포인트 되는 동작들이 많아서 매우 마음에 든다. 이 안무의 가장 주된 감정이 ‘혼란스러움’ 인데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좋다.

III. 결론

1. 안무 총 평가

1) 일반인 평가

18학번 지연우

전체적인 안무의 완성도는 정말 좋습니다. 춤 선에서 감정이 잘 느껴집니다. 감정들을 표현하려 하는 게 보기 좋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5학번 강연우

안무 설명 글을 보는데 전부 아픔과 관련이 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모든 안무 설명에 힘듦, 지침 등 비관적인 표현들이 쓰인 건가 궁금하다.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안무가 좋다. 유튜브에 올리면 100만 팔로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신들린 것 같고

춤 분야에선 존경스럽다. 이 논문도 창작의 고통을 많이 받았을 텐데 수고했다. 아마 1차일 것이다.

2) 전문가 평가

09학번 유현영 (현직 댄서)

배경과 의상 센스에 감탄했다. 혼자서 이 다양한 안무를 구상하고 만들었을 거라고 과정을 생각하니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오금이 저리더라.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고, 다양한 도전들과 시도들이 눈에 보였다.

한 마디만 쓴 소리를 해보자면, 너무 예뻐서 하려 하지 않았나 싶다. 왜 굳이 모든 음악들을 팝송으로 했는지도 궁금하다. 원하는 게 단순히 춤 동작을 보여주는 것인지 춤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는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거기에서 안무의 방향이나 분위기, 동작들이 많이 달라질 테고 안무를 소화하는 본인의 마음가짐 혹은 태도도 많이 달라질 테니까.

고생 많았다고 굿피팡팡해주고 싶당!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출 거라면 멋진 댄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춤출 때 스스로를 놔 버리고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 말길! 춤추는 사람들이 가진 그 강점은 그 누구도 못 따라올 것이라고 자신한다.

cheshir 하유빈 (프리픽스, 레츠댄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댄서)

일단 5개의 작품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족 작품에선 사이가 좋으면서도 마냥 가깝지만은 않은 관계에 느껴지는 두 가지의 감정, 친구1 작품에서는 인간관계를 대하는 가치관에 있어 부딪혀 사랑하면서도 죄책감과 미안한 두 가지의 감정. 친구2 작품에서는 다르기에 가장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어찌면 가장 편안한 관계. 그 속에서 즐거운 한 가지의 감정, 친구3 작품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가진 관계로 서로에게 의지하는 따뜻하고 끈끈한 크게 한가지의 감정, 마지막으로 나 작품에선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여러 가지의 관계를 나의 시점으로 풀어낸 다양한 감정.

이렇듯 한 작품 안에서 한 개 이상의 감정을 표현하기란 정말 어렵는데 그중에 매우 어려운 '혼란' '연대감' 등등의 감정을 선택했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만큼 어려운 감정 선이기에 저는 가장 단순한 감정 선을 풀어낸 친구2 작품이 오히려 가장

와 달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감정을 작품 안에 담아내는 건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작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가 느꼈었던 감정을 춤을 추면서 똑같이 느낄 때,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어려운 주제로 여러 가지 감정을 풀어내려고 하셨던 것,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안무가로써 조연을 몇 가지하자면 논문의 가장 큰 주제가 다양한 관계 속의 다양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품 안에서의 의상들과 안무를 풀어나가는 동작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의상과 안무가 예를 들어 다른 학원에서 '춤'을 출 때와 비슷한 의상과 춤이었기에 제 3자의 시선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작품에서 집 앞에서 촬영을 한 것처럼 그 주제들에 맞는 의상과 장소를 선택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족작품에선 잠옷을 입고 춘다든지 친구123작품에선 친구들을 만났었던 교실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교복이나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자주 입는 옷이라든지, 또 마지막 나 작품에서는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기 방이나 그런 옷 같이 본인이 최대한으로 몰입하기 쉬운 장소와 의상들로써 다가가야 다른 사람도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감정을 작품 안에 담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현직으로 활동하시는 수많은 안무가들 중에서도 그런 감정을 담아내고 표현 하는 안무가는 정말 10명도 안 되는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려운 사항을 도전해보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이렇게 안무에 대해서 글로 정리하고 풀어나가며 작품을 만들었던 과정은 본인의 춤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디딤돌이 될 예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생많았습시다 :)

3) 자기 평가

전문가 평가와 일반인 평가는 확실히 다르다. 일반인 평가에서는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단순한 동작들이 많은 안무(나, 친구1)에서 감정표현이 잘 되었다는 좋은 평들을 들었지만 다른 안무들에서는 감정 표현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문가 평가는 감정을 나타내기 쉬운 단순한 동작들이 많은 안무(나, 친구1)보다는 그냥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뭔가 내포된 뜻이 있는 안무(가족)에서 더 좋은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단순하게 오직 '즐겁다' 라는 한 감정만 담은 친구2의 안무는 전체적으로 좋

은 평가가 나왔다. 그건 내가 생각해도 정말 감정이 잘 느껴진다.

처음 안무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과 작곡은 하늘과 땅 차이인 듯, 춤을 그냥 추는 것과 직접 안무를 짜는 것 또한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다. 평소 내가 춤추는 것을 보고 나의 능력치를 판단했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주 컸다. 서론에 적어 놓았듯, 워크숍을 다녀온 후 압박감이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안무를 전문적으로 평가해주는 어른이 없으니 이게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헷갈렸다. 청소년이 작곡하고, 청소년이 그림을 그리고, 청소년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매우 흔한 일이지만 청소년이 안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처음 봤을 것이다. ‘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본 춤이 다일 것이고, 춤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속에서 본 춤이면 아주 유명한 안무가들의 춤일 것이다. 청소년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잘한 건지 판단해주지 못하니 매우 힘들었다. 나의 능력치와 퀄리티가 낮게 평가되는 것 같았다.

모든 안무가 매우 마음에 든다. 안무를 처음 짜보는 것치고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 나의 작품이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던 신경쓰지 않겠다. 나는 잘했다.

2. 돌아본 나의 관계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레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떠올렸다.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니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 관계를 통해 깨닫고 얻은 것들이 참 많았다. 더 나은 나와,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 글을 썼고, 안무를 만들었다. 주변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뿐이라, 내가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소중한 사람들을 깊게 생각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시간들이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 맘 알죠 ? ><

♥ 덕래쌤! 많이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늘 잘할 거라고 믿는다며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ㅠㅠ ‘춤’이라는 매개체에 대해 다들 이해하지 못할 때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 논문 쓰느라 바쁜 3학년 언니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준 우리 막내 서준일 피곤하고 귀찮았을 텐데도 영상 다 찍어줘서 고마워..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 무거운 카메라 들고 있느라 그 가녀린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 힝... 내년 논문 파이팅하고^^

♥ 서준이가 들고 있었던 그 무거운 카메라를 빌려준 윤서 사랑해

♥ 평가해주신 분들 다 너무 고마워요.. 본문 마감 이틀 전에 너무 촉박하게 부탁했는

데도 불구하고 엄청 정성스럽게 열심히 예쁘게 써준 새봄이! 라면을 포기하면서까지 (본인 피셜) 영상과 글 돌려보며 열심히 적어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 연우! 계속 USB 빌려준 것도 너무 고마워. 너의 USB는 내 본문으로 가득해 하하. 또! 거의 무슨 전문가평가처럼 깔끔하고 담백하게 적어준 예현언니! 진짜로 전문가 평가로 넣어도 될 것 같아.. 평가 말고도 논문 쓰면서 언니가 해준 말들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 다들 정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하고.. 정성스럽게 써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 작품에서도 그렇고 본문에서도 그렇고 피피티에서도 그렇고 논문 쓰면서 막히는 거 있을 때 찾아가면 다 해결해주던 피터팬님! 그 에어드롭.. 전문가 평가.. 그거 진짜 너무 미안해.. 괜히 번거롭고 귀찮게 했어ㅠㅠ 진짜 고마워!!!!!!

♥ 여름방학 합숙 때 같이 있게 해준 경당 사람들!! 다 너무 감사해요. 괜히 민폐만 끼친 것 같아 조금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때 강당에 있지 않았더라면 작품을 다 완성하지 못했을 지도 몰라요ㅠㅠㅠㅠ 감사해요!!! 물론 희석샘이 제일^*^ 김밥으로 매일 제 아침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학교 와이파이를 막히고 전산실은 블랙이고 인터넷으로 찾아야 하는 자료가 있을 때 정말 멘붕이었는데 그 때마다 전산실에서 내 파일 대신 찾아주고 메일도 대신 확인해준 오우진!! 뿐만 아니라 올해 내 정신적 지주였다고 생각한다. 진짜 고마워 넌 세상 천사야 그렇지만 비밀번호는 죽을 때까지 너만 알고 있어야 해..

♥ 내 모든 노래 편집해준 다운언니ㅠㅠㅠㅠ 진짜 너무 고마워 언니가 없었다면 난 4분 풀타임으로 뛰어야 했을 거야.. 부탁했을 때도 엄청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고 완벽하게 편집해줘서 진짜 고마워

♥ 이! 태! 훈! 물론 내가 작년에 도와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가 없었다면 지금 고마운 사람들을 적고 있지 못 했을 거야.. 진짜 완벽해!! 다 오빠가 완벽하게 해줄 거 아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지. 내 맘 알지? 진짜 고마워ㅠㅠ

♥ 그리고 내 알랍하투뽕뽕 친구들 너희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어. 많이 사랑하는 거 당연히 알지? 우리 언젠간 셀럽파이버 꼭 하자.. 파티도 꼭 하자... 진짜 꼭..... 이제 좀 잉여롭게 살자.. 꼭..... (김서준 말고. 김서준 이제 논문 시작이다)

♥ 엄마아빠 내 논문 도와주지도 않고 논문 쓰려고 하면 자꾸 자기들끼리만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했지만 고마워. 뭐가 고마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고맙다고 써줄게 ^*^ ㅎㅎ

<부록>

논문일지

2018 05 02 수요일

논문계획서 피드백을 받았다. 작품 평가 기준도 보았다.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분량을 늘려야한다고 하셨다. 기존 얼반댄스들이 1분 안팎이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럼 1분 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감정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니 너무 짧은 것 같다. 아마 파트별로 감정별로 나눠서 몇 곡씩 나오지 않을까 싶다. 학교에 춤을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 작곡이면 선호샘이 계시고 사진은 윤하샘, 그림은 미술샘, 옷은 깡지샘 등 다 있는데 춤은 없다. 사실 그래서 내 작품을 평가받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내가 잘하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하는 거예요! 라고 해주실 분도, 내가 못 하면 이 정도면 진짜 못 하는건데. 라고 전문적으로 봐주실 분이 없는 거니까. 슬프다.

2018 05 08 화요일

춤 속에 담고 싶은 감정들을 간략히 정리했다.

2018 05 10 목요일

가족 친구, 친구2 세 파트의 노래를 모두 정했다.

가족 : Lorde - Perfect Places

친구 : Maroon 5 - Lucky Strike

친구2 : Ariana Grande ft. Big Sean - Best Mistake

2018 05 15 수요일

친구2 노래 편집을 어떻게 할지 초수로 다 정하고 대충의 시나리오를 모두 짰다.

2018 05 16 수요일

안무를 어떻게 짜야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나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 노래를 계속 들으면 흥얼거리게 되면서 살짝씩 안무가 생각난다. 그런 것들을 계속 프리스타일로 추며 영상을 찍고, 그 속에서 괜찮은 동작을 뽑아 짜집기해서 만든다. 오늘도 프리스타일로 계속 추면서 영상을 찍었다.

2018 05 17 목요일

덕래샘의 노래 피드백

친구는 너무 신나기만 함. 친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 한 가지 색깔 밖에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친구들을 담아내지 못 한다. 말로만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음.

친구2는 평범한 곡이다. 기억이 안 남. 다시 듣고 싶지도 않음. 연인들이 부르는 흔한 사랑 노래 같음.

2018. 06. 13 수요일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감정들과, 안무의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했다.

친구와 연인은 스토리적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 다른 곡들은 전체적인 감정을 토대로 만들 예정이다.

2018. 06. 19 화요일

친구를 두 곡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럭키 스트라이크는 신나는 감정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울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한 곡 더 할 예정이다.

2018. 06. 28 목요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느낀 감정들로 인해 만들어진 내 감정을 표현한 안무도 한 곡 하기로 했다. 노래도 정했다. 노래는 sia의 샹들리에.

2018. 07. 05 목요일

간디자인 회의 중 어쩌다 논문 얘기가 나와서 안무를 어떻게 짜야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깡지샘이 '와이낫더댄서' 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다. 방학 때 몰아봐야겠다!

2018. 07. 12 목요일

방학 중 경당 합숙 때 학교에 와서 논문 작업을 하기로 했다. 희석샘에게 감사하다.

2018. 07. 16 월요일

집에 오자마자 '와이낫더댄서'를 모두 봤다. 자세한 감상평은 본문에!

2018. 07. 18 수요일

다은언니에게 논문 노래 편집을 부탁했다. 정말 흔쾌히 해줘서 진짜 너무 고맙다ㅠㅠ 덕분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쓸 수 있게 되었다. 안무 짜기가 한결 쉬워진 것 같다!

2018. 07. 21 토요일

좋아하는 댄서의 워크샵을 다녀왔다. 그런 클래스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정말 춤밖에 안 춰서 어색한 것도 없었고 너무 재밌었다! '체서' 님이 전문가 평가해주신다고 하셨다! 꺽

2018. 07. 25 수요일

논문 쓰러 학교에 갔다. 강당은 생각보다 시원하다. 강당에 혼자 있는 게 생각보다 아늑하다. 거울 있는 혼자만의 공간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안무 짜는 건 너무 어렵다. 학기 중에 틈틈이 조금씩 생각해두었던 동작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동작을 생각하고 노래에 넣으면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다. 노래를 들으며 잘 들리지 않는 작은 박자들을 생각해야 동작이 나온다. 예상치도 못하게 30초나 했다. 뿌듯-! 윤서와 소현이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다. 역시나 동작을 생각하고 노래에 넣은 것들이 어색하다고 했다.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지는 않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 잘 묻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너무 신나게 노는 느낌만 난다고 했다.

2018. 07. 26 목요일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시간도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른해진다. 자버렸다. 어제 애들이 어색하다고 한 동작들을 바꾸었다. 더 공들인 부분이 확실히 완성도가 높다. 경당 사람들과 계곡을 다녀왔다. 이쯤 되면 합숙하러 온 건지 논문 쓰러 온 건지 살짝 헷갈린다...

2018. 07. 27 금요일

어제 너무 한 거 없이 하루를 보내서 오늘은 걱정하고 해보았다. 결국 가족 안무는 모두 완성했다! 사실 비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계속 수정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 샹들리에와 렛 미 리브 프리스타일로 한번 취봤다. 정말 좋은 노래! 역시 박자가 뿔뿔해야 춤을 출 수가 있다. 박자가 너무 좋아!

2018. 08. 16 목요일

렛미리브가 저번에 프리로 취했던 영상의 동작들이 내가 내고 싶은 느낌과 너무 잘 맞아서 조금 수정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다. 1분 정도로 조금 짧기는 하지만 일부러 늘리는 느낌이 아니라 딱 액기스만 뽑아놓은 느낌! 아주 좋아용

2018. 08. 17 금요일

샹들리에도 저번에 프리로 취했던 동작들이 너무 좋아서 수정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다. 샹들리에에는 곡 자체가 너무 풍부해서 내고 싶은 느낌이 엄청 많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뽑아볼 것이다. 럭키스트라이크는 박자가 엄청 많다. 사실 딱 신나는 느낌만 나는 안무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동작을 넣어야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 15초 정도 하고 막혀있음...

2018. 08. 28 월요일

태훈 오빠한테 본문 얘기를 해봤다. 잘 얘기를 해주었다. 너무 일기, 독후감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더 논문 같이 딱딱하게 써야 한다고 했다. 덕래쌤과 본문 얘기를 처음으로 해봤다. 덕래쌤이 꽤 잘하고 있다고 해주셨다. 다른 선배들 본문보다는 비슷한 주제인 효원언니의 본문을 더 참고 하라고 했다. 형식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다. 바로 본문에 넣지 말고 각각 다른 문서로 조금씩 적은 것들을 모아놓아도 괜찮다고 하셨다.

2018. 08. 29. 수요일

김서준한테 지금까지 짠 안무들을 담은 영상을 보여줬다. 같이 춤추는 입장이다 보니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덜 부끄러웠다. 한번 보여주니까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 애도 춤추니까 받는 피드백이 확실히 퀄리티가 훨씬 높다.

가족은, 가만히 서서 하는 건 포인트 같은 느낌인데, 중간에 가만히 서서 하는 손 키스 동작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간략히 말하면 불편한 듯 편한 듯이 주제인데, 불편해 보이는 동작이 1도 없다. 목을 옥죄는 듯한 동작처럼 본문에 캡처해서 넣을 때 포인트로 꼽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와재 진짜 불편하네. 하는 동작을 넣으라고 해줬다.

렛미리브의 뒷부분에 있는 가슴 치기 동작은 네 번 말고 두 번만 하고, 다 느린 동작이니까 한 동작을 여러 번 하면 너무 뻘하니까 많은 동작 넣으라고 해줬다.

2018. 08. 31 금요일

김서준이 말해준 고쳐야 할 부분들을 모두 수정했다.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저번엔 살짝 어정쩡했던 동작들까지 모두 수정해 렛미리브와 가족은 완성했다.

2018. 09. 01 토요일

주말엔 정말 강당에 틀어박혀서 논문만 써야지. 안무를 1차적으로는 모두 완성해야지. 다짐했는데 덕산을 나가버려서 모두 망했다. 그래도 럭키스트라이크 후반부까지 모두 안무를 짜서 럭키스트라이크까지 완성시켰다!

2018. 09. 02 일요일

상들리에의 후반부까지 모두 안무를 완성했다. 내가 3학년이 된 후, 1학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들었던 감정들이 제일 잘 표현되어있는 안무여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지금까지의 안무들을 다시 김서준한테 피드백 받고, 베스트 미스테인크의 안무만 짜면 된다.

2018. 09. 05 수요일

베스트미스테인크 안무를 프리로 조금 해보았다. 생각보다 어렵다.

씩 버는 안무가들의 안무와 내 안무가 다를 게 없다니. 세상 제일 좋은 칭찬이다^^

2018. 09. 23 일요일

가정학습이다. 아직 안무도 다 완성하지 못 했고 본문도 이제 슬슬 써야한다. 분명 학교에서는 가정학습 계획을 짤짤하게 세워놓았었다. 언제 하지.

2018. 09. 26. 수요일

중간발표가 끝나면 마음이 더 급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발표를 끝내 놓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일주일 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인생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2018. 09. 30 일요일

가정학습 안에 베스트미스테인크 안무를 완성하는 게 목표였다. 역시 이루지 못 했다. 가정학습 가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나 빼고 여행 간 엄마아빠 덕분에 학교에 일찍 도착해 논문을 쓸 수 있었다^^ 신주현도 논문을 쓰러갔다. 화난다. 결국 10초밖에 더 하지 못했다. 진짜 어떡할래 한별아?

2018. 10. 01 월요일

목학 내내 다목적실에서 베스트미스테인크 안무를 짰다. 정정하겠다. 사실 잔 시간이 더 긴 것 같다. 나름 꽤 많이 짰다.

가을축제 주간이라 강당을 써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강당에서만 찍을 수 있는 안무가 2개 나 있는데 시간이 거의 전혀 안 난다. 다른 아이들은 토요일이 작품 마감날이지만 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이 마지막 날과 다름없다. 압박감이 너무 크다. 너무 힘들다.

2018. 10. 02 화요일

덕산에 나가서 친구2 영상을 찍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 정작 영상 찍을 때 해가 별로 나지 않았다. 색감이 막 엄청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서준이에게 너무 고맙다.

목학 때 다목적실에서 베스트미스테인크 안무를 짜다가 갑자기 필이 꽃혀서 프리로 한번 취보았다. 레전드다. 프리로 추고 나서는 늘 너무 짜증나는 게 그 프리의 동작들을 안무로 만들려면 내가 외워야 하는데 그 프리 동작을 다시 따라하지 못한다. 분명 내 몸에서 나온 동작인데도 전혀 다르게 나온다. 화가 난다. 그래도 이번 프리만 어떻게 잘 다듬으면 이거 완성이다.

2018. 10. 03 수요일

가족 안무는 집 마당에서 찍고 싶었지만 가정학습 때 카메라가 없어서 찍지 못 했다. 대신 태진

샘네 집 같은 예쁜 집에서 찍고 싶어서 태진샘 번호를 물어보러 희석샘에게 갔다. 물어보자마자 쿨하게 '우리 집에서 해.' 라고 하셨다. 정말 너무 멋있었다. 오전에 영상을 찍으러 희석샘네 집에 갔다. 검이와 흰이가 뛰쳐나왔다. 소리를 질렀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김서준을 당겼다.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배경이 너무 예뻐다.

3교시에는 샹들리에와 친구1을 찍었다. 저번에도 찍었지만 그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몸 컨디션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가장 처음에 찍은 영상이 제일 잘 나와있었다. 너무 좋았다.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날 보면서 진짜 미쳤다는 생각을 했다. 레전드다.

작품이 모두 끝났다. 너무 행복하다!

2018. 10. 06 토요일

작품발표를 했다. '나' 영상을 틀었다. 사람들이 중간발표 때 본 '친구3' 영상보다는 감정 전달이 훨씬 잘 된다는 평가를 해주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이제 작품은 완전히 끝이다. 본문도 꽤 써놓았으니 수월할 것 같다.

2018. 10. 12 금요일

중간발표 때 제출한 본문에서 달라진 게 없다. 논문 써야 할 시기에 미지정 공연이 3개나 겹쳐 너무 바쁘다. 나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정말 너무 바쁘다. 매일 4시간씩 자며 점심, 목학, 취침, 아침연습까지 미지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정도면 나 정말 대단하다.

2018. 10. 15 월요일

안무 캡처를 하기 시작했다. 동작들을 캡처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컴잘알 윤서가 재생속도를 느리게 해서 캡처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대로 해보았다. 짱이다

2018. 10. 16. 화요일

태훈오빠가 드디어 내 논문을 도와준다. 역시 정확하게 사진들을 편집해주었다. 너무 고맙다. 본문 제출 이틀 전에 촉박하게 평가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잘해주었다. 진짜 감동받았다....

2018. 10. 17. 수요일

본문을 미친 듯이 써야 할 시간에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미지정 진짜 너무 힘들다. 본문을 쓸 때는 내일이 음악제인데 의상도 안 정하고 개인파트도 열심히 연습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건지 화가 나고, 미지정 연습을 할 때는 내일이 본문 제출 날인데 빨리 본문 안 쓰고 뭐하는 거지 싫다. 본문을 거의 다 써간다. 역시 나다.

2018. 10. 18. 목요일

어제는 두시간밖에 자지 못 했다. 의외로 개운하다. 저저번주부터 매일 4시간씩 밖에 자지 못 했는데 머리로 매일 감고, 옷도 차려입고 화장도 한다. 다른 친구들은 모자를 썼다. 폐인이 되었다. 난 폐인이 되지 않았다. 내가 승리자다. 오늘도 두시간 자고 일어나 머리 감고 렌즈끼고 옷 입고 풀메까지 마쳤다. 나 정말 대단하다. 본문 다 썼다 해해